

東北亞細亞 袴의 發生 및 傳播에 關한 研究

— 4~7世紀 중심으로 —

전 성신여대 교수 朴京子
대전실업전문대학강사 李震卿

| 目 次 | |
|--------------------------|-------------------|
| I. 序論 | 1. 東北亞細亞 袴의 發生 |
| II. 東北亞細亞의 地理的條件과 時代的 背景 | 2. 東北亞細亞에서의 袴의 傳播 |
| 1. 東北亞細亞의 地理的 條件 | IV. 結論 |
| 2. 東北亞細亞의 時代的 背景 | 參考文獻 |
| III. 東北亞細亞 袴의 發生 및 傳播 | ABSTRACT |

I. 序論

우리 民族은 알타이語族(Alata: 語族)에 속하는 퉁구스族(Tungus 族)의 한 갈래인 東夷族을 基幹으로,¹⁾ 上古時代로 부터 東北亞細亞의 廣大한 領域을 中心으로 生活해 오면서 獨特한 服飾文化를 形成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夏濕冬乾한 大陸性氣候로 인해 寒帶性 服飾과 溫帶性 服飾의 樣相이 混合되어 나타나고 있다. 즉, 寒帶性 服飾에 나타나는 四肢를 감싸기 위해 人體의 形에 맞추어 構成하는 體形型과 溫帶性 服飾에 나타나는 앞이 갈라진 前開型 衣服이 混合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는 結局 東北亞細亞 地域의 遊牧民에게 共通的으로 나타나는 北方胡 服系統의 衣服이며, 基本型은 窄袖의 襦와 袴이다.

東北亞細亞라는 地域的 設定은 韓國을 包含해 韓國과 地政學的으로 隣接해 있는 中國, 日本, 蒙古 地域을 일컫는 것인데, 이 地域은 알타이인이 蒙古, 滿洲를 거쳐 韓半島, 日本 等に 分布되면서 各地方의 地理的 條件을 좇아 어떤 곳에서는 狩獵, 遊牧하고, 어떤 곳에서는 土着, 農耕生活을 하기 始作하였다. 그러므로 알타이 地方에서 中國을 包含

한 日本까지의 住民과 文化는 모두 蒙古人種과 그들의 文化라 하겠다. 이 地域에서 外蒙古, 內蒙古 및 延安, 太原 부근의 中國北邊과 西北滿洲는 移動地方에 속하며, 그 南쪽의 모든 地域, 즉 中國平野, 南滿洲, 韓半島, 日本 等は 土着地方에 속한다. 하지만 모든 國境은 긴 歷史속에서 자주 移動되었고, 住民은 恒常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모여 들었으며, 文化는 높은 것이 낮은데로 흐른 까닭에 어느 地方에나 結局은 같은 文物이 普及되었음은 疑心할 여지가 없는 일이다.²⁾ 東北亞細亞 여러 民族間의 頻繁한 交流에 따른 服飾文化의 交流를 必然的인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여기서 上古時代 服飾의 文化的 交流에 의한 影響力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本 研究의 目的은 韓國과 隣接해 있는 東北亞細亞 여러나라, 즉 中國, 日本, 蒙古地域까지를 範圍로 해서 共通的으로 基本服飾이 되는 袴의 發生을 더듬어 보고, 4~7世紀 동안의 民族間 交流에 따른 袴의 傳播過程을 考察해 보고자 하는데 있다. 이와 더불어 上古時代 우리나라의 袴에 대한 基本形成 및 系統을 다시 한번 確認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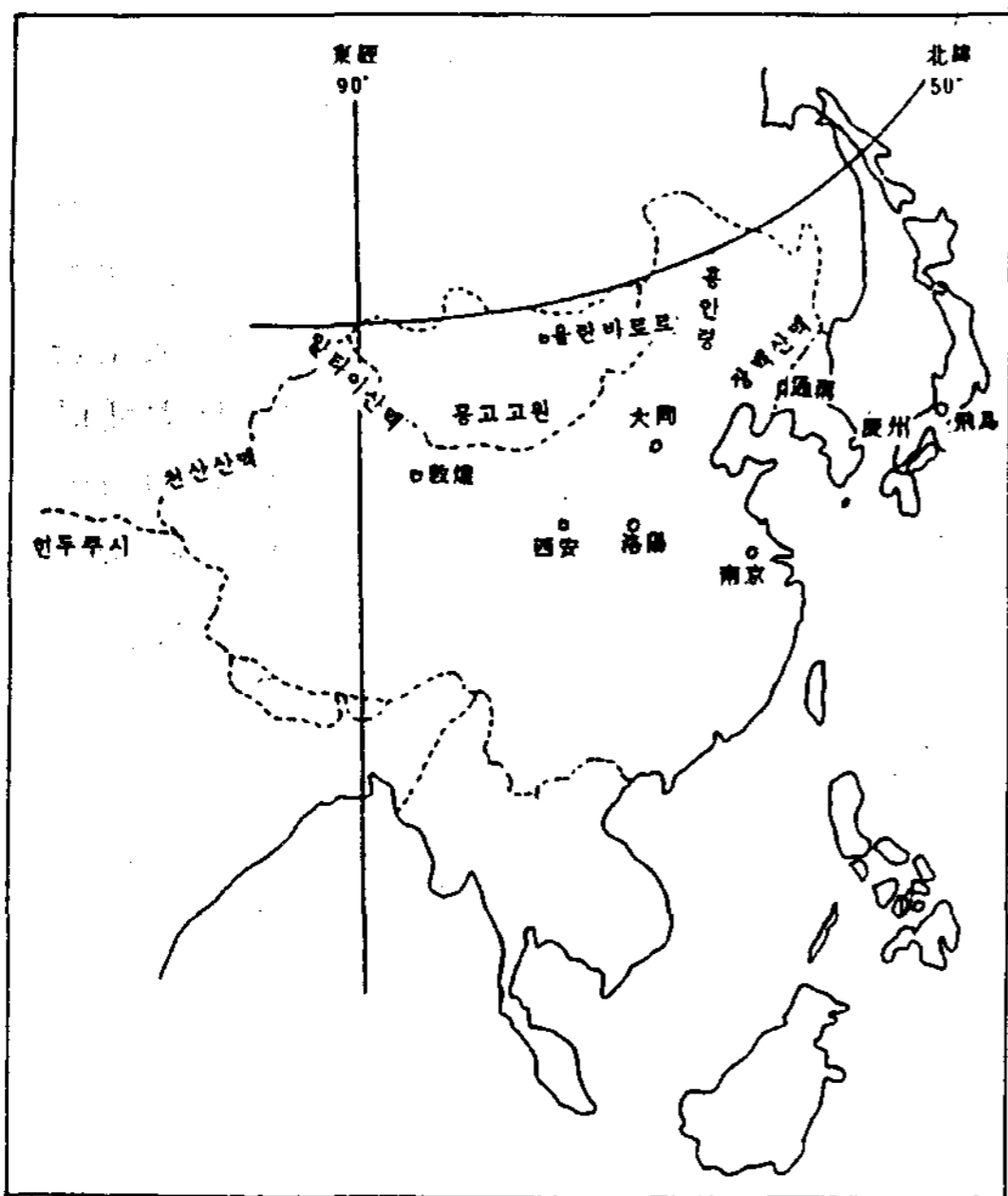
1) 「世界文化史Ⅱ」, 서울: 學園社, 1964, p. 564.

2) 朴時仁, 「알타이 文化史 研究」, 서울: 探求堂, 1970, p. 50.

II. 東北亞細亞의 地理的 條件과 時代的 背景

1. 東北亞細亞의 地理的 條件

東北亞細亞란 유라시아 大陸 中央에 北韓 50°선과 東經 90°선의 교차지점 부근에 알타이 山脈이 있고, 그 東南은 蒙古의 高原沙漠이고 蒙古의 南쪽에는 中國, 東쪽에는 滿洲가 있다. 알타이 山脈 南方의 天山山脈과 이어지는 힌두 쿠시의 綠地가 中央亞細亞와 中國의 自然的 境界線을 이루고 있으며, 송화강 요하가 흐르는 그 大平原을 건너면 장백山脈이 가로막은 아래에 韓半島가 붙어 있다. 이 半島 東南 끝에서 대마도이끼[一支] 등 서로 건너다 보이는 섬들의 징검다리를 건너면 九洲를 비롯한 日本列島에 이른다.³⁾ <圖 1참조> 結局 東北亞細亞 地域은 亞細亞 大陸의 東北에 위치한 蒙古地方을 포함해서 中國, 韓國, 日本이 이에 속한다 하겠으며, 대개 文化圈의인 側面에서 中國大陸의 影響을 많이 받았다.



<圖 1> 古代 東北亞細亞의 地形

이 地域은 일찌기 文化가 發達되었고 人種的으로 均一性이 보여 알타이系 蒙古人種의 壓倒的 集中 地域으로 되어 있다.⁴⁾

氣候는 대부분이 溫帶 내지 寒帶 南部에 속하며, 季節風의 影響을 받는 濕潤亞細亞에 包含된다. 이러한 氣候條件으로 蒙古는 遊牧移動, 滿洲는 遊牧移動과 農業土着, 中國, 韓國, 日本等은 모두 農業土着으로 各 地方의 主要 生業과 住民의 移動의 路線을 대개 決定하였다. 이 結果 土着地域에 人口가 蓄積되었고, 이러한 移動은 文化傳播에 많은 影響을 미쳤을 것이다.

以上과 같이 東北亞細亞의 地理的 條件은 이곳에서 生活하는 사람들은 勇猛스럽고 活動的이게 하였으며, 이런 生活에 適合한 活動性있고 實用價値가 많은 服飾을 생겨나게 하였다.

2. 東北亞細亞의 時代的 背景

우리나라의 三國이 모두 古代國家의 體制를 確立하게 된 4世紀 頃부터 唐의 文化를 흡수하기 시작하는 統一新羅以前까지인 7世紀까지를 時代範圍로 說定하였다.

나라別 時代區分은 <表1>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當時의 社會的 狀況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는 三國統一 以前으로 여러 部族國家로 分立되어 있었으며 隣接國과의 交流도 다르게 나타났다.

高句麗는 遼東 및 遼西地方에서 中國과 直接接觸하고 있었으며, 塞外民族들과의 交涉도 많았는데, 靺鞨과 鮮卑는 그 代表的인 種族이었다.

百濟는 紀元 4世紀初에 統一國家로서 그 體制를 갖추었고,⁵⁾ 南北朝 여러 나라와는 자주 使節을 교환하였다. 바다를 통해 中國과 直接 交流하였으며 후에는 隋, 唐과의 往來도 頻繁하였다.

新羅는 韓半島 東南部에 자리잡아 中國의 文化를 間接的으로 導入하게 되었으나 비교적 純粹한 固有의 文化를 간직하면서, 紀元 5世紀 頃부터 統一國家로서의 體制를 完備하였다.⁶⁾

3) 朴時仁, 前揭書, pp. 3~4

4) 鄭璋鎬, 「地理學 辭典」, 서울: 景仁文化史, 1982, p. 133.

5) 東北亞細亞研究會, 「日本文化源流로서의 比較韓國文化」, 서울: 三省出版社, 1980, p. 549.

6) 上揭書, p. 550.

〈表 1〉 古代 東北亞細亞의 年表

| 年 代 | 韓 國 | 中 國 | 日 本 |
|-------------|-------------------|-------------|-------|
| A D. 200(年) | | (220) | |
| | | 三國時代(魏·吳·蜀) | 彌生時代 |
| | | (265) | |
| 300 | | 西晉 (280) | (4C) |
| | 高 句 麗 | (317) | |
| 400 | | 東晉 五胡十六國 | 古墳時代 |
| | 百 濟 | (420) | |
| 500 | | (439) | |
| | 新 羅 | 南北朝 | |
| 600 | | (589) | (552) |
| | | 隋 | 飛鳥時代 |
| 700 | (668) (663) (676) | 唐 | (670) |
| | 統一新羅 | | 白鳳時代 |

이들 三國은 外來文化를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原來 文化와 融化시켜 飛躍的인 發展을 가져왔고, 高句麗 大陸文化의 影響이 南쪽의 우리나라 文化에 밀거름이 되었던 것처럼 三國의 文化는 日本文化의 發展에 현저한 影響을 미쳤던 것이다.

2) 中國의 魏晉南北朝時代는 貴族 또는 豪族이라는 社會階層이 政治, 社會, 文化의 모든 면에서 中心的 역할을 遂行하는 體制이며, 이런 社會體制가 唐代까지의 中國社會를 特徵짓는다.⁷⁾

4世紀 初에 西晉이 滅亡한 후 五胡十六國時代가 初來하면서 東晉이 發興하는데, 이 五胡十六國은 약 120年間 亂立하고 있었다.

隋, 唐時代란 後漢末의 混亂 以後 分裂崩壞한 古代統一帝國의 再建을 隋에 의하여 그 基礎를 構築케 하고, 唐으로 하여금 完成케 하는 時期를 말한다.⁸⁾ 이 時期는 中國의 統一帝國 再建과 활발한 對外

活動으로 눈부신 發展을 가져왔으며, 이 影響力은 東亞細亞 諸民族에게까지 擴散되었다.

3) 日本은 점차 統一國家로서의 統治形態를 갖추기 시작했고, 彌生時代의 農耕의 發達로 經濟力이 상승하여 점차 階級的 社會로 發展한 時期이다. 645年 文化의 改新을 계기로 韓半島가 中繼하는 일 없이 大陸의 唐과 直接 國交가 열리기 以前까지의 日本은 韓半島를 통해서만 先進文化를 받아들이고 있었으므로 當時 우리나라 文化가 그대로 再現되었다 하겠다.

韓半島에서 佛敎가 傳來되었던 飛鳥, 白鳳時代에 이르러서는 佛敎的인 性格을 띄기 시작했고, 차츰 中央集權體制를 確立하게 되었다.⁹⁾

東北亞細亞에서의 4~7世紀 동안의 人文은 特히 활발하였는데, 佛敎의 移布가 그 한 例이다. 佛敎는 前秦에서 高句麗(372年), 東晉에서 百濟(384年), 高句麗에서 新羅(5C末), 百濟에서 倭(552年)로 傳播되어 갔다.¹⁰⁾ 이 佛敎의 傳播는 4~5世紀 東北亞細亞에서의 文化圈 形成에 큰 影響을 미치는데, 이는 單純한 宗教의 傳播에서 뿐만 아니라, 宗教가 새로운 地域에 傳播되면서 服飾이나 美術 等の 物質文化를 必然的으로 수반함과 同時에 그 浸透範圍가 넓다는 特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Ⅲ. 東北亞細亞 袴의 發生 및 傳播

1. 東北亞細亞 袴의 發生

東北亞細亞 여러 民族에게 共通的으로 나타나는 北方胡服系統의 袴의 原初를 究明한다 함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다. 이는 資料가 미비할 뿐더러 北方系服飾狀態가 尤라시아 內陸에서부터 日本에까지 넓게 散在되어 나타나며, 北方遊牧騎馬民族들의 移動性과 生活特性으로 보아 그들의 文化가 빠른 시간내에 넓게 傳播되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北方胡服系統의 袴의 發生을 좇음으로서 우리나라 袴의 始原을 찾을 수 있고, 그것을 擴大하면 우리나라 古代服飾의 源流까지도 밝혀질

7) 東洋史學會, 「東洋史」 서울: 知識産業社, 1983, p. 79.

8) 卞麟錫, 「東洋史 研究論集」, 서울: 學文社, 1981, p. 200.

9) 李恩珠, “日本古代服飾에 관한 研究”, 「大韓家政學會誌」 23(2), 1985, p.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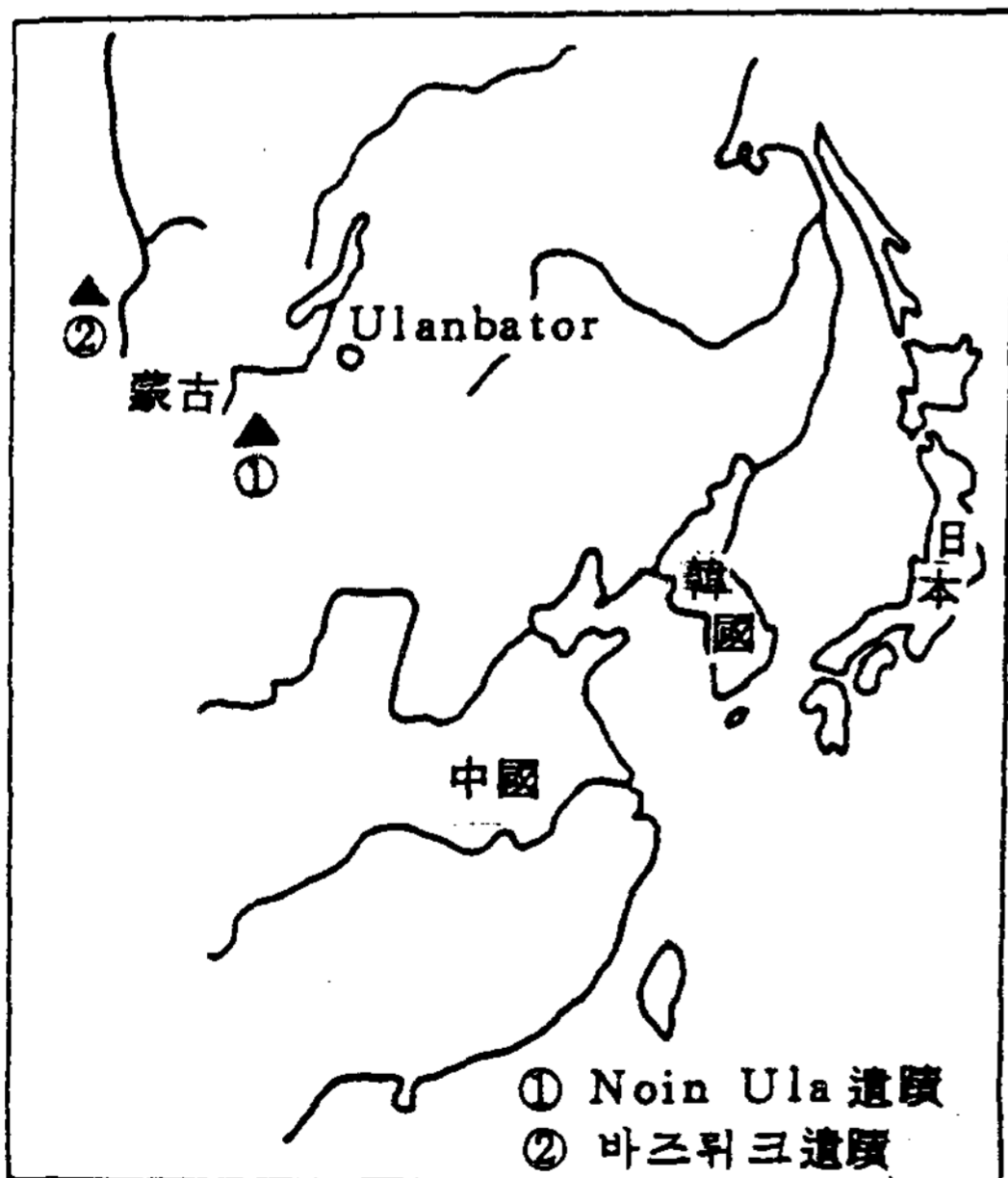
10) 朴時仁, 前揭書, p. 79.

수 있음으로 매우 뜻있는 일이라 하겠다.

袴의 發生은 自然環境的인 要求에 起因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점차 時代的 欲求에 부응하면서 變化·發展되어 왔다. 처음에는 주로 가죽을 使用하였고, 織物이 생겨나면서 幅이 넓어지고 그에 따라 두 가랑이를 연결하는 襠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 후 더욱 活動的이고 便安한 衣服으로 發展하였다고 본다.

이러한 袴를 紀元前부터 着用하고 있었던 民族을 더듬어 본다면, 東쪽은 蒙古高原에서 中央亞細亞를 거쳐 이란 大荒野, 카스피海와 黑海의 北部沿岸, 시리아, 아라비아, 아프리카의 一部까지 미친다. 다시 말해서 西南亞細亞의 아라비아 半島까지 유라시아 大陸을 비스듬히 橫斷하는 굵은 線과 그 周邊을 包含한 分布圖로 나타난다. 이들의 生活樣式이 移動과 騎馬를 使用하는 共通的인 特徵을 보였다.¹¹⁾

이들 地域中 東北亞細亞 地域에 나타나는 袴의 가장 오래된 遺物은 1924年 現 外蒙古 Ulanbator 122km지점(圖2)에서 發見된 紀元前後 1世紀頃의 匈奴王侯 古墳인 Noin·Ula에서 出土된 것이다.



〈圖 2〉 Noin-Ula와 바즈뤼크 遺蹟址

이 Noin·Ula 地方은 北方騎馬遊牧民族에 속하는데, 그 文化 領域은 B.C. 2000年頃 登場하는 스키타이(Scythian) 文化圈이라 할 수 있겠다.

스키타이는 近來에 와서 狹義인 B.C. 7世紀~B.C. 3世紀에 걸쳐 黑海沿岸 카우카사스 北部를 中心으로 居住하던 遊牧民族을 持稱하던 것인데,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룩한 典型的인 騎馬民族으로 東쪽에서 黑海부근의 南러시아로 B.C. 1000年初에 온 것으로 추측되는 強力한 軍事力을 所有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의 活躍은 南方여러民族들 뿐 아니라 內陸 유라시아 草原地帶 住民들의 騎馬民族化에도 重大한 역할을 하였다.¹²⁾ 이들의 衣服은 筒袖의 上衣와 袴, 가죽 반장화와 주머니를 매어 달은 가죽 Belt 등 우랄산맥에서 興安嶺에 이르기까지의 地域의 廣大함에도 불구하고 服飾文化를 비롯해 그 무기, 用具, 住居에는 긴밀한 類似性이 보이며, 衣服材料에는 가죽으로서 羊, 牛, 駱駝 外에 들짐승의 毛皮등이 使用되며, 農耕民族으로부터의 약탈과 交易에 의한 絹, 麻 等의 材料도 使用되었다.¹³⁾ 이들 服裝은 大陸內의 定着遊牧民族들에게 傳播되어 紀元前 5世紀頃에 이미 普及되고 있었다.

이러한 北方系服飾의 根幹을 이룬다고 보는 스키타이 文化의 服飾을 자세히 다루는 것은 본 논문 의 규모로 보아 무리가 있겠으나, 本 論文에서는 古代



〈圖 3〉 스키타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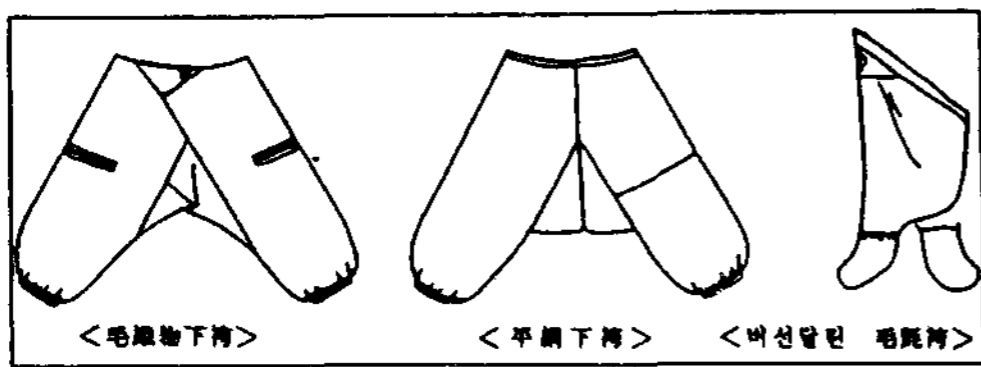
11) 曹圭和, “바지의 起源 및 交流”, 「國民大學 論文集」, 16號, 1979, p. 217.

12) 金文子, “古代韓國服飾의 源流에 關한 研究”, (博士學位論文,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1984), p. 5.

13) 杉本正年, 「東洋服裝史論攷—古代編」, 東京:文化出版局, 昭和 56, pp. 262-263.

服飾의 特性上 民族마다의 獨自의 領域보다는 같은 系統의 民族에게 거의 비슷한 形態가 나타났을 것임을 염두에 두고 스키타이 文化圈에서의 Noin·Ula 바지를 통해 東北亞細亞 袴의 原初的 形態를 찾고자 한다.

Noin·Ula 遺物 (圖 4)은 그 發見된 곳이 匈奴의 遺蹟이므로, 當時 東北亞細亞 알타이 民族 衣服의 典型에 속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高句麗服과 日本 政倉院의 바지와 그 形態를 같이 하고 있다.



〈圖 4〉 Noin-Ula 出土바지

毛織物의 바지는 褐色이며 幅이 넓고, 가랑이 밑에 트임이 없는 前後同形으로, 大腿部의 位置에 裝飾이 있는 것이 特徵이다. 約 19cm되는 幅의 옷감을 둘로 접어 옆으로 가게 하여 밑위와 밑 아래에 바대를 댄 흔하지 않는 形態이다. 허리부분은 가늘게 세번 접어 감칠질하였고, 바지부리에는 좁은 밴드가 달려 있다. 組紐가 바지와 같이 出土된 것으로 보아 허리에 매어 입은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는 高句麗의 大口袴와 類似하다. 바지의 치수는 左右가 다르며, 길이는 옆선이 約 112cm, 앞중심은 뒤중심보다 約 3~5cm 길다. 이런 樣式은 무릎을 세우고 앉는 風習 때문이라 생각된다.¹⁴⁾

絹織物의 바지는 질은 茶色의 絹布 2幅을 幅 9 4.1cm로 꿰매었고, 길이는 101cm인 襪衣였다. 허리에 다른천을 대었고, 부리는 毛織物 바지와 같다.¹⁵⁾ 이는 오늘날 우리나라 女子바지의 形態와 같으며, 버선을 단 감발과 같은 脚絆에 버선이 달려있는 것이 따로 出土된 것으로 보아 다리부분을 活動하기 좋게 강똥하게 한 것 같다. 우리 制度로 말하면 행전에 버선이 달려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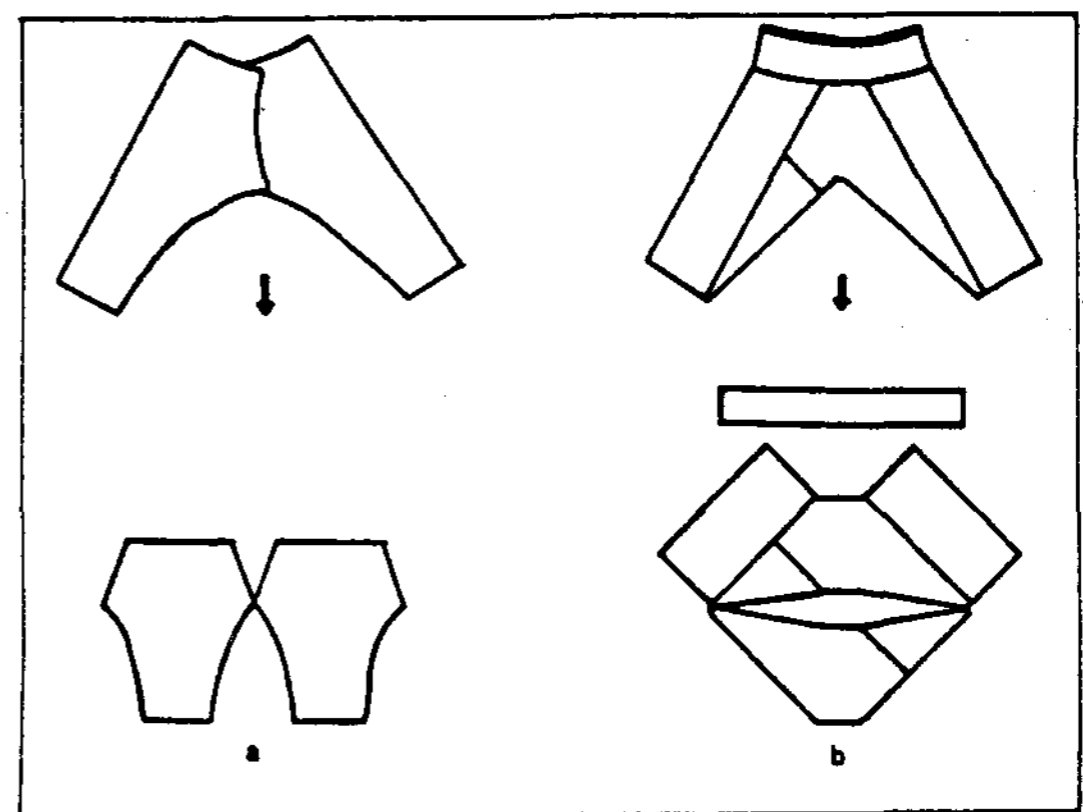
以上과 같은 服裝樣式은 알타이 山地의 바즈뤼크 古墳(圖2참조)에서도 紀元前 5世紀 發見되었는데, 이들 服裝은 古代 韓半島의 服裝과도 共通點이 많았다.¹⁶⁾

Noin·Ula의 文化는 紀元前後 1世紀頃의 匈奴文化로서 中國이 이들과의 接觸이 잦아지면서 점차 韓半島로 流入되었으며, 倭에게 까지 影響을 미치게 되었다.

本 論文에서는 Noin·Ula 바지의 形態를 究明하기 위한 資料로써 蒙古服飾의 形態와 裁斷에 대해 記述한 「Mongol Costume」¹⁷⁾을 考察했는데, 裁斷方法에 따라 2가지 形態로 나누고 있다.

첫째로 두다리가 한번에 박혀 兩立되는 것 (圖 5, a)으로 때로는 허리밴드가 달리기도 했고, 둘째로 바지의 中央部(Central Part)의 布가 삼입되어 있는 것(圖5, b)이다. 이러한 構成을 基本으로 한 Mongolian의 바지中 Copenhagen 國立博物館에 所藏되어 있는 12벌의 바지를 說明하고 있는데, 그 內容은 〈表2〉와 같다.

기계바느질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Noin·Ula 바지보다 훨씬 後代의 것으로 보이나, 기본 形制에는 차이가 없다. 1點만이 sheep skin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Cotton으로 되어 있으며, 裝飾으로는 Painting이나 Cotton으로 무늬를 붙이는 정도였다.



〈圖 5〉 蒙古 바지의 類型과 展開圖

14) 加藤定子, "바지의 起源에 대하여" 「第3回 亞細亞服飾學術會議 研究發表要旨」, 韓國服飾學會, 1984, p. 23.

15) 金東旭, 「韓國服飾史研究」, 서울: 亞細亞文化史, 1979, p. 63.

16) 杉本正年, 前掲書, p. 268.

17) H. H. HANSEN, "Mongol Costumes", K ø BENHAVN, 1950.

〈表 2〉 蒙古人の 바지 分析表

(cm)

| 형태 종류 | 길이 | 허리 band의 너비 | 넓이 | 바지 부리 | 재 단 · 재 봉 | 재 료 | 장 식 | 비 고 |
|----------|------|-------------------|------|----------|----------------------------------|---------------------------------|---|---------------------------|
| ① | 100 | | 60 | 20 | 앞과 뒤에서 세로로 봉합되어 두다리가 만남 | undyed cotton | scarlet painting | lama skeleton dress |
| ② | 100 | | 55 | 20 | " | undyed cotton | scarlet painting | " |
| ③ | 92 | 14 | 53 | 20 | ①②와 같으나 band를 박아 붙인후에 다리를 박음 | undyed cotton | 단과 다리양쪽가 장자리가 진홍색 | " |
| ④ | 90 | 13 | 50 | 18 | " | undyed cotton | 바지 부리와 무릎 부분에 scarlet cotton으로 무늬 | " |
| ⑤ | 90 | 20 | 70 | 20 | " | 내부에 부드러운 털이 있는 sheep skin | | shaman costume |
| ⑥ | 104 | 19.5 | 50 | 20 | ③④⑤와 같으나 가랑이에 4개 의 작은 삼각천을 땀. | dark blue cotton | | 기계 바느질, 남·녀 모두 입을 |
| ⑦ | 105 | 17 | 50 | 20 | " | undyed cotton | | 기계 바느질, shaman costume |
| ⑧ | 107 | 17 | 50 | 20 | " | undyed cotton | | " |
| ⑨ | 90 | 14 | 90 | 20 | " | undyed cotton | | 기계 바느질, 일반 남·녀 |
| ⑩ | 90 | 14 | 90 | 20 | " | undyed cotton | | " |
| ⑪ | 90 | 14 | 90 | 20 | " | undyed cotton | | " |
| ⑫ | 107 | 20 | 70 | 23 | " | undyed cotton | | wrestler's dress |
| 평 균 | 97.1 | 17.3 | 64.8 | 20 | | | | |

裁斷이 單純하면서도 機能的으로 보아 아주 發達된 것이 特徵이다.

服飾은 가죽이나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直接的인 資料가 나타나는 것은 6世紀 以後가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Noin·Ula 遺物이 나옴으로 해서 우리의 上古服飾과 같은 胡服系統의 原祖形態를 밝힐 수 있게 된 것은 고마운 일이다.¹⁸⁾ 더구나 保存形態가 거의 正確하고, 그 후 4~5世紀頃에 나오는 高句麗 古墳壁畫와도 服飾形態가 거의 類似하므로 더욱 心證을 굳힐 수 있다.

2. 東北亞細亞에서의 袴의 傳播

1) 中國의 바지

紀元前에 스키타이·蒙古의 服飾을 一環으로 한 北方系 바지·저고리의 服飾文化는 우선 紀元前 3世紀에 趙 武靈王이 이를 中國服飾으로 借用하기에

이르러 蒙古服飾의 影響을 받기 始作하였다.¹⁹⁾ 當時 中國은 匈奴와 接觸하면서 그들 騎兵射擊의 技術을 배우게 되었고, 騎馬에 適合한 그들의 바지도 受容하게 된 것이다.

漢代까지만 하여도 固有文化의 傳統과 思想이 存立되었고, 敬天崇祖의 禮儀思想이나 五行思想, 儒教倫理를 基盤으로 하였던 時代였으나, 漢 武帝의 西域征伐을 기점으로 하여 東西間의 文化交流가 이루어짐과 同時에 北方의 騎馬民族의 말의 機動力과 鐵器文化에 힘입어 中國의 北部에 侵入하여 遊牧民族 固有의 服飾이 차츰 漢民族 자체를 同一圈에 끌어들이면서 여러가지 影響을 끼치게 되었다.²⁰⁾ 그러나 「說文」에 「袴經衣也」라 하였고, 注에는 「左右各1개씩 가랑이가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褌도 바지이고 袴[속옷]도 바지라 한다.」라고 했으며, 「釋名」에는 「袴와 跨는 양다리가 따로 달린 것」이라

18) 金東旭, 前掲書, p. 62.

19) 金東旭, "蒙古服飾의 韓國, 日本의 服飾文化에 끼친 影響" 「第三回 亞細亞服飾學術會議」, 國際服飾學會, 1983, p. 6.

20) 金東旭, 「百濟의 服飾」, 서울: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85, p. 14.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바지 形式의 下衣인 것이 分明하므로 袴는 漢代의 以前에도 使用되었을 것임이 確認되었다.²¹⁾ 하겠다.

이는 原田淑人이 「漢六朝의 服飾」에서 밝힌 바와 같이 袴가 언제나 裳이나 袍속에 가려 곁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며, 단지 騎者나 廝徒같이 모든 勞動에 從事하는 사람들만이 活動을 위해 袴를 곁으로 입어 下級層에서만 袴를 着用했던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점이 騎馬民族의 바지와 中國바지의 差異點이라고 본다.

여기서 古代 바지形式에 대한 王宇清의 意見を 들어 보면, 바지類에는 袴, 袴, 套袴, 禪 등이 있으며, 이 중 袴는 무릎아래를 덮는 脚絆類이요, 이것이 연장되어 허벅지의 一部를 덮는 두개의 가랑이 形態가 套袴制이고, 한개의 허리에 연결되어 몸판의 앞부분도 가리기는 하나 아직 밑이 열린 것이 漢族의 一般的 袴制였다. 여기에 襠이 붙고 밑이 막히게 된 것이 窮袴이며, 窮袴의 形制로 길이가 짧고 통이 좁아 下庶人의 勞動服化한 것이 禪이라 본다고 하였다.²²⁾

中國服飾은 原來 衣와 裳이었는데, 當時 南北對決의 異民族으로부터 시달리고 있던 漢族에게는 國力을 強化하기 위해 軍事의 服裝으로 胡服이 絶실히 要求되었으며, 革으로 製作되어 韋囊이라 稱했다. 이것이 漢代에는 袴褶이라 稱해졌는데, 다른 民族이 使用할 때 胡服이지만 자기들이 着用할 때 袴褶이라 했던 것이다.

「袴褶」이란 말은 後漢에 이르러 文獻에 登場하는데, 原來 胡服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니 馬上衣란 뜻이 되었고, 저고리와 바지차림의 衣服이다.

이 袴褶의 制에 대해서는 時代別로 다른 樣相을 보이는데, 먼저 三國時代에는 「魏志」에 皇太子가 田獵服으로 着用한 것을 보고 「虞族之賤服」이라 하여 上流社會에서 멸시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晉代에는 天子 以下 文武百官이 戒嚴服으로 着用하였다.²³⁾ 이것이 南北朝時代에 들어서면 「宋

書」帝紀에 皇帝가 小袴褶을 着用했다고 記錄되어 있으며, 「南書」帝紀에는 戎服으로 급하여 곁에다 무릎밑에 잡아 매어 입고, 이것을 常服으로 하여 袴褶의 制가 南朝官吏의 常服으로 使用되었다고 한다. 물론 北朝에서는 이것이 本來 固有의 옷이어서 北魏時代에는 이미 文武百官의 朝服으로 定해졌다.²⁴⁾

隋時代에는 7世紀初 大業2年 漢制, 南北朝의 制度를 본받아 이 때 袴褶의 位置도 定해졌는데, 天子, 皇太子도 乘馬時에는 袴褶을 입게 되었다. 또한 武官은 朝服에 武辯을 使用했는데, 從行時에는 平巾幘에 袴褶을 着用하였다.²⁵⁾ 結局 晉代에는 따로 戎服이 있었으나 東晉代에 오면서 袴褶이 戎服으로 되어 騎馬服뿐만 아니라 日常時에도 愛用하였는데, 이것이 隋代에까지 이어진다.

唐時代에 와서는 隋의 制度를 繼承하여 整備하였다. 이때 袴褶에 使用되는 織物 및 色彩가 位에 따라 定해졌으며, 마침내 女性에까지 流行하여 袴褶馬女性의 모습이 많이 보였다. 女性의 바지도 男女區別 없이 普及된 것으로 오랫동안 賤視되었던 바지가 비로서 中國服化하여 古來의 衣服처럼 男女間에 着用되었다. 즉, 큰 形態的 差異없이 天子에서부터 侍從에 이르기까지 戒服 또는 常服, 朝服의 外衣, 中衣 등으로 着用되었다.

바지가 中國人들에게 一般化되는 경위에서 주목할 점은 王이 自信부터 着用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服飾의 傳播特性上 賤服視되어 온 衣服은 下流層에서 上流層으로 흘러감이 一般的인 상황이겠으며, 실제 西歐 로마에서는 王이 極力 바지着用을 피해서 庶民層에서 普及되었는데 이와는 對照的이라 하겠다. 이는 時代的 要求에 부응하기 위해 王이 스스로 곁에 내어 입은 것이다.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中國에서는 胡服이 채용되기 以前時代부터 裳속에 袴를 받쳐 입고 있었으며, 그 當時는 防寒의 目的으로 中國 獨自적으로 存續해 온 것이었다. 그러던 것이 趙 武靈王의 胡服 채용

21) 杉本正年, 「東洋服裝史論攷— 中世編」, 東京: 文化出版局, 昭和 54, p. 107.

22) 金仁淑, 「바지考— 바지 形態에 대한 小考」, 「大韓家政學會誌」 25(2), 1987, p. 27.

23) 石宙善, 「韓國服飾史」, 서울: 寶晉齋, 1971, p. 9.

24) 杉本正年, 前掲書, p. 109.

25) 曹圭和, 前掲書, p. 215.

以後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騎馬에 適合하게 되었고, 이는 스키타이文化圈과 그에 속한 韓半島系服飾과 相通하는 것으로 변모된 것이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袴를 그들의 衣服이라 여기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文獻에 나타나는 袴는 극히 드물며, 사진 등을 통해 보아서야 長袍아래에도 반드시 袴를 着用하고 있음을 確認할 수 있다.<圖6~8참조>



穿鎧甲的秦代將士



北朝陶俑



洛陽西漢空心磚墓壁畫

<圖 6> 漢代的 袴樣式



甘肅嘉谷關出土壁畫, 農民

<圖 7> 魏晉南北朝時代의 袴樣式



步鞞圖

唐永泰公主墓 前室壁畫

〈圖 8〉隋·唐時代의 袴樣式

2) 韓國의 바지

古代 우리民族은 東夷族을 根幹으로 하여 蒙古의 南部地方에 있다가 滿洲平野를 거쳐 韓半島에까지 移住하여 定着하였으니, 우리 古代服飾이 北方系統의 胡服이었음을 疑心할 여지가 없다.

여기서 古代로부터 三國을 통하여 내려온 中國大陸文化의 影響을 無視할 수 없는데, 특히 當時 上流層의 服飾에 影響을 미쳤다. 그러나 그 變遷過程에서 보아 中國服飾과 北方系服飾의 相互交涉이라 볼 수 있겠다.²⁶⁾ 이는 中國에 胡服이 채용되는 紀元前 308年보다 뒤 늦게 成立되는 우리나라 三國에 나타나는 服飾이 紀元後 59年에 成立되는 中國의 服制보다는 匈奴의 胡服과 크게 相通하는 바로도 알 수 있다.

紀元前 2世紀 中國이 漢郡縣을 成立하면서 高句麗에 樂浪郡이 約 3百年 동안 存續하는데, 이 때 漢文化가 半島에 傳해진다. 그러나 그 후 313年이 되어 高句麗와 百濟가 挾攻하여 漢의 殘存勢力인 樂良,

帶方을 몰아내고 半島에 三國을 鼎立하게 되었다. 이로써 各國의 固有文化가 體制를 갖추기 시작했고, 그에 따른 服飾文化의 領域도 特色지워졌다.

高句麗는 北扶餘와의 싸움이 그치지 않았고, 遼東·遼西地方에서도 中國 本土와 頻繁하게 接觸하고 있었다. 또한 韓族外의 많은 나라와도 國交가 계속되었다.²⁷⁾ 특히 372年 中國에서 佛敎가 傳來되면서 佛敎文化가 收入되었고, 部族國家에서 部族聯盟國家로 轉換되면서 階級分裂이 深刻해지고, 織造技術의 發達로 織物이 豊富해지면서 服飾에 새로운 樣相을 가져왔는데, 이는 制限된 上流層에 보이는 奢侈와 襪袖形 衣服이며, 우리의 固有服飾形態에는 變함이 없었다. 특히 庶民層에 있어서는 日말의 要素도 변하지 않은 固有의 北方系服飾을 着用하고 있었다.

百濟도 近五百年 동안을 靺鞨과 싸움을 계속했고, 오히려 南朝와의 交涉으로 高句麗보다 먼저 大陸文化를 받아들였으나 服飾은 高句麗와 비슷하다.²⁸⁾

新羅는 大陸文化 흡수가 뒤떨어지기는 했으나, 統一事業을 成就하기 위해 眞興王때부터 활발하게 大陸文化를 받아들였으며 이를 自國文化로 完成시켰다. 이 후 三國統一이란 歷史的 事業을 完遂해 나가는데, 이에 따라 服飾은 勤勞的이며 武風的인 것이 되었고, 創意的 修飾에 특히 豊富함을 보여 준다.²⁹⁾ 이는 眞德女王 3年(649年) 唐 服飾을 朝廷에서 襲用하게 되면서도 冠服 속의 基本服飾은 벗어 버리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固有의 服飾이 여전히 支配的이었고, 또한 그들의 獨創的인 文化形成의 根本的인 基盤이 된 것이다.

이렇듯 三國의 袴形態는 거의 共通的인 것이었는데, 朝鮮朝 以前까지는 나타나는 實物이 없으므로, 高句麗 古墳壁畫를 통해서 確實히 볼 수 있다. 壁畫의 年代는 대강 4世紀 初에서 7世紀 初에 이르는 400여년간이다. 學者들은 이를 前期(4世紀 後~5世紀 初), 中期(6世紀), 後期(7世紀 前半)로 나누고 있는데, 人物이 나타나는 때는 前·中期 古墳이므로

26) 李京子, "北方系服飾에의 關心과 服飾史教育", 「服飾」 第5號, 韓國服飾學會, 1981, p. 240.

27) 石宙善, 前揭書, p. 17.

28) 上揭書, p. 19.

29) 李如性, 「朝鮮服飾考」, 서울: 白楊堂, 1947, p. 106.

대상年代는 4世紀末에서 6世紀에 이르는 200年間이 된다.³⁰⁾

이 壁畫들을 보면 女子도 袴만을 着用하고 있어 北方的인 胡服系統임을 確固히 해주고 있으며, 오늘날의 衣服과 別 差異가 없어 보인다.

以上の資料를 綜合하여 보면 上代 우리나라의 袴는 아래의 4가지 形態로 分類할 수 있겠다.

① 大口袴

바지 가랑이의 幅이 넓은 寬袴로서 袴大口와도 같은 말이며, 발목에서 많은 여분을 나타내면서 여며진 것으로 보아 長袴라고도 할 수 있겠다. 女子



梅山理四神塚 狩獵圖



雙楹塚 貴人像

는 바지부리를 발목에서 매어 치마속에 입기도 하였는데, 壁畫에서 보면 墓主, 말탄사람, 貴人等 上流層의 男女가 입고 있다. 이는 階級分化가 이루어진 後의 現像이므로, 평양遷都以後의 壁畫에서 바지통이 넓어진 듯 하다.<圖9>



舞踊塚 주인과 손님

<圖 9> 大口袴의 着裝 모습

新羅에서는 慶州의 異次順 供養幢에 浮彫되어 있는 異次順像과 斷右山右壁에 陰刻되어 있는 三人의 供養人物圖에서 모두 大口袴와 相通되는 廣袴를 着用하고 있다.³¹⁾

異色的인 面을 보이는 것은 百濟의 梁·職貢圖에 나타나는 使臣<圖10>과 章懷太子 李賢基의 壁畫 賓客圖에 보이는 新羅使臣<圖11>이 입고 있는 袴인데, 바지통이 넓은 大口袴이나 길이가 짧고 대님을 매지 않았으며, 바지부리에 굵게 선이 둘러져 있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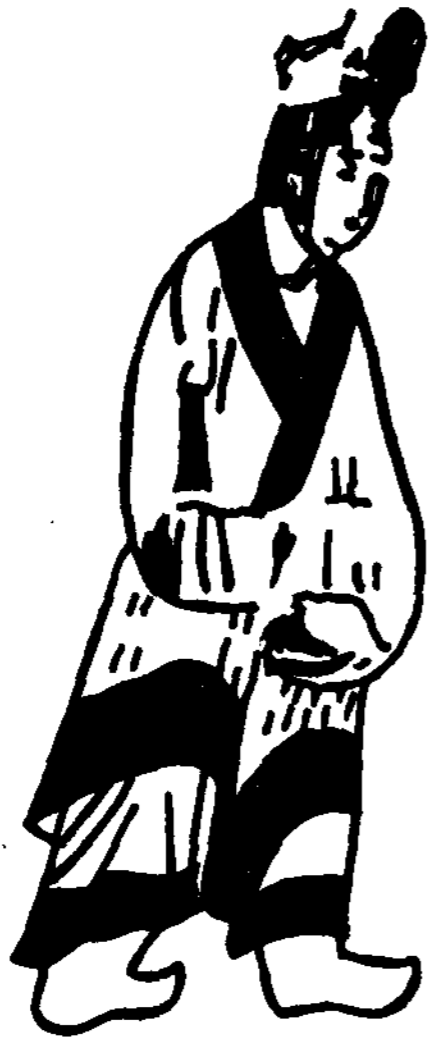
以上으로 볼 때 高句麗, 百濟, 新羅의 貴人級은 모두 大口袴를 着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② 細袴

寬袴보다 가랑이 통이 좁은 바지로 前期古墳에서 는 거의 모두가 細袴를 입고 있다. 무용을 하는 사람

30) 李京子, “高句麗 古墳壁畫의 服飾研究”, 「韓國文化研究院 論叢」, 28, 梨花女子大學校, 1976, p. 201.

31) 李如星, 前掲書, p. 129.



〈圖 10〉百濟使臣圖



〈圖 11〉新羅使臣圖



〈圖 12〉舞踊塚 舞踊圖



安岳3號墳 行列圖



舞踊塚 主室東壁

〈圖 13〉細袴의 着裝 모습

〈圖12〉이나 侍者級〈圖13〉 사람들이 입었으며, 바지 부리에 다른 色의 襷이 둘러져 있기도 하다. 그리고 부리를 발목에 매어 입은 것과 매지 않은 것이 있다.

新唐書 東夷傳 新羅條에 「男子褐袴」라고 있는데, 褐이란 굵게 짠 옷감으로서 原來부터 賤者所服이라 하였으니 一般庶民服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러므로 細袴의 形態라 추측된다.

③ 窮袴

窮袴는 오늘날의 바지 같은 것으로, 가랑이 사이에 밑바대를 대어 밑이 막힌 바지이다. 우리나라의 바지는 모드 이에 속하며, Noin·Ula에서 發見된 遺物바지와도 같다. 이는 中國의 開襠袴와는 다른 것으로 騎馬民族에게는 必要不可缺한 衣服形態이다.

新羅의 土偶夫婦像 <圖14>이 있는데 男子가 통이 좁은 窮袴에 굵은 줄을 그어 주름을 표시했는데, 高句麗의 窮袴와 類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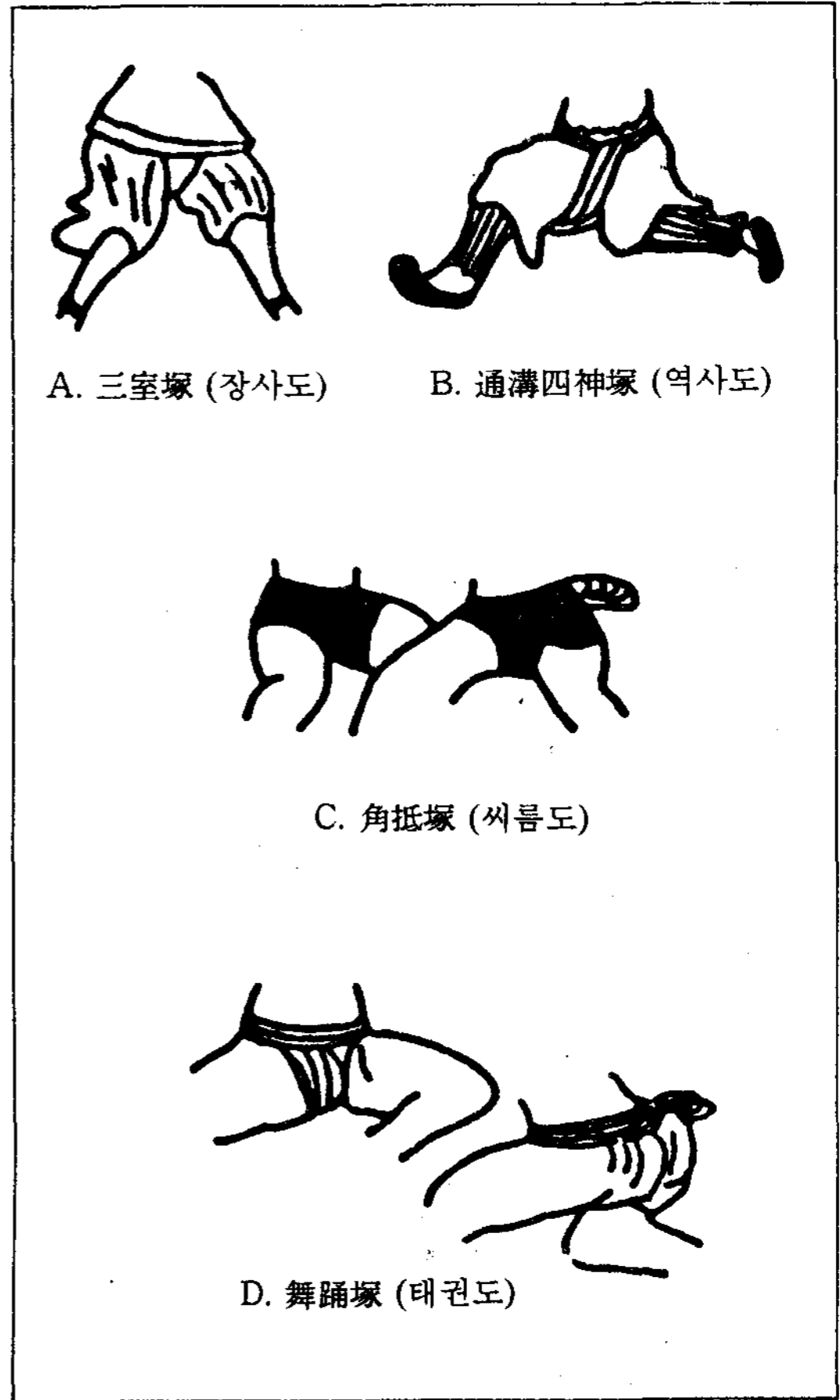


<圖 14> 土偶夫婦像

④ 禪

가랑이가 짧은 바지라고 생각되며, 壁畫에서 보면 壯士, 수문장, 力士, 씨름하는 사람들이 입고 있다. <圖 15> 이는 現代의 여름 장방이와 짧은 속고의라고 본다. 中國에서는 漢代에 이를 短禪, 犢鼻禪이라고 하였다.³²⁾

禪은 內衣用이나 下庶人의 勞動服으로 보이며, 4~5世紀頃 우리나라에서 着用해 온 우리의 장방이



<圖 15> 高句麗 古墳壁畫에 나타난 禪의 形態

構造를 보아 三國時代의 장방이에도 開閉式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다.

百濟는 梁書에 「袴曰禪」이라 있으며, 新羅에는 흔적은 없지만 史書에 衣服은 高句麗와 같다고 하였으니 禪이 存在했으리라 본다.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統一新羅 以前의 三國은 固有服飾으로 上下가 분리된 襦袴를 共通的으로 着用하고 있었으며, 이는 실제로 西域 胡人의 모습의 資料 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으므로, 現在로서는 Scythian 服飾形態에 그 始源이 있음이 거의 明白하다 하겠다. 또한 이 三國의 服飾은 뒤에 나오는 日本의 바지에도 影響을 미치는데 庶民層에 의해 開拓되

32) 朴京子, 「韓國服飾論攷」, 서울:新丘文化社, 1983, p. 198.

고 지켜져 온 것이라는데 그 意味가 크다 하겠으며, 오늘날까지도 변함없이 지켜져 오고 있는 것이다.

이 三國 무렵 中國에서는 silk road의 물결을 타고 西方의 文物이 들어오는데, 西方의 影響은 韓半島나 日本은 물론 東亞細亞 全域에 미치게 된다.

3) 日本의 바지

日本은 東에서 西로 길게 놓인 列島로서 東日本은 北方에, 西日本은 南方에 位置한다. 北方文化는 北海道와 韓半島를 통해 移住한 사람들에 의해 形成되었고, 南方文化는 多様な 移住者에 의해 形成되었다. 이 두 文化는 氣候, 風土에도 差異가 있어 文化現象은 물론 服飾에도 差異를 보인다.³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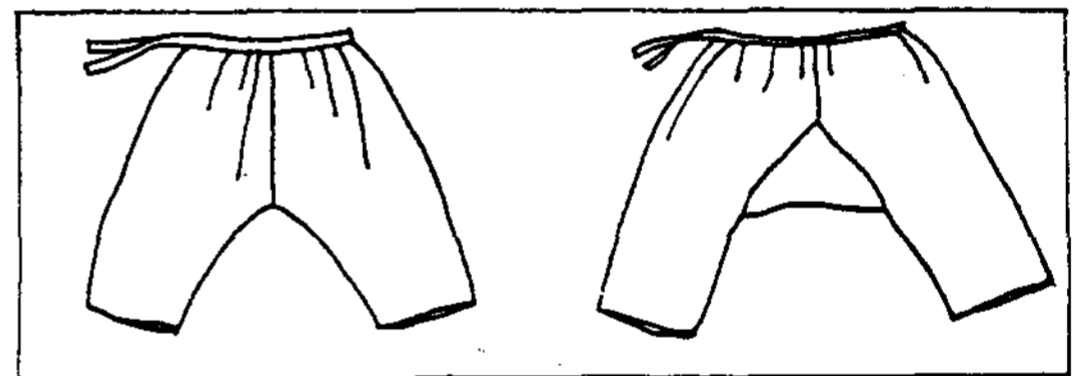
日本에 있어서의 4~5世紀는 倭의 服飾이 文獻史上 처음 등장하는 「魏志倭人傳」이 3世紀 後半 成立된 後이고, 原始문에서 歷史時代로 들어가는 古代文化의 黎明期라 하겠다.³⁴⁾ 古代日本은 東北亞細亞 大陸의 影響을 받으며 文化가 變化 發展되어 갔으며, 그들의 南方的 要素가 一部에 存立하고 있었다. 이 大陸文化의 影響으로 보아 服飾文化 또한 韓半島의 影響이 컸을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日本의 一部 學者들은 見解差異를 보여 韓半島 全土를 中國의 文化圈이라 확대시켜 놓고 中國의 文化를 直接 흡수했다고 主張하거나 自生說을 主張하기도 하나, 이는 研究가 進行됨에 따라 正當한 解釋이 이루어지리라 본다.

日本은 「魏志倭人傳」에 나와 있는 貫頭衣나 橫幅衣가 주된 服飾이었는데, 이는 異說이 구구하나 현재 대만의 山地族이 입고 있는 우리의 등걸이형의 貫頭衣와 짧은 치마형의 橫暴衣였다고 생각한다.³⁵⁾ 그러나 4~5世紀 以後 南部의 여러 韓族 集團이 건너가 南方文化를 征服하고, 農耕生活을 營爲하면서 乘馬와 鐵器文化를 가진 北方알타이系統의 새로운 文化를 成立하였고, 그들 支配層으로 등장하면서 服飾에 커다란 變貌를 가져왔다. 이 時期에 影響을

준 것은 475年 高句麗에 밀려 공주로 천도한 百濟가 南下한 것인데, 이를 確證해 주는 것은 「梁書」, 東夷傳百濟條에 「袴曰禪」이라 한 것과 埴輪[하니와]의 服飾을 衣禪[기누하까마]이라 한 것이다. 이로써 적어도 4~5世紀부터 7~8世紀頃까지 東北亞細亞諸民族의 服飾構造에는 별다른 差異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 時期 日本의 服飾을 나타내는 代表的인 것은 古墳時代의 埴輪, 飛鳥·白鳳時代의 天壽國曼陀羅繡帳과 高松塚壁畫가 있으며, 正倉院에는 바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表袴로 장방형의 襠을 달아 밑이 열려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三角形의 襠이 달렸으며 밑이 열리지 않는 바지이다. 여기에 좁은 허리와 끈이 있어 허리에 매어 입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 제도는 오늘날의 몸빼에 그대로 傳承되고 있다.³⁶⁾ 그리고 또 正倉院에는 久太布衫에 대응되는 久太袴(圖16)가 있는데, 窮袴이며, 기본制樣은 우리나라 女子바지와 같다. 이 바지가 日本의 하가마(ハカマ)로 發達하여 갔다.



〈圖 16〉 久太袴

古墳時代 服飾을 보여주는 貴重한 資料인 人物埴輪(圖17)은 殉死의 習慣을 고치기 위해 墓를 지키는 사람 대신 使用된 人形이다. 여기에 나타난 服飾에 대해서 後藤守一은 自生說을 主張하거나 中國의 六朝樣式에 갖다 붙인다. 그러나 그의 弟子인 龜井正道는 바지 形態는 밑통이 넓어 설사 무릎밑에 대님[脚結]을 친다 해도 步行에 적절한 것은 되지 못한다. 오히려 허리에서 허벅지까지 여유있게 만들어진 形態는 乘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느낌이다. 4世紀末에서 5世紀初頃에 걸쳐 半島 諸國과의 軍事

33) 朴京子, “高松塚壁畫人物服飾의 服飾史的 研究”, 「誠信女子大學校 生活文化研究 論文集」 創刊號, 1987, p. 143

34) 杉本正年, “東아시아의 服飾系統 [4~6世紀의 展望]”, 「衣生活研究」 Vol. 9, No. 3·4, 關西衣生活研究會, 1982, p. 61.

35) 韓國文化財保護協會, 「韓國의 服飾」, 1982, p. 90.

36) 金東旭, 「百濟의 服飾」, 前掲書, p. 58.



〈圖 17〉人物埴輪

的, 文化的 交涉의 結果로서 5世紀 前葉以後 차차 乘馬의 風俗이 생겨 乘馬에 適合한 服飾으로 옷옷과 바지로 분리된 衣服의 形式이 採用되었을 것이라고 可能性을 主張했다.³⁷⁾

埴輪에 나타난 服飾은 窄袖短衣에 脚結한 大口袴인데, 濕潤高温한 日本의 氣候로 인해 바지가 넓어지고 무릎아래 대님을 매는 等 部分的인 變化는 가져와도 우리나라 三國時代의 胡服樣式과 類似한 것이다. 이 무릎 밑부분은 「足結」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방울을 달기도 했다.³⁸⁾

6世紀의 群馬藤岡 出土 武人像을 봐도 이러한 바지에 맞게 袴甲이라 할만한 갑옷이 있어 무릎아래 매는 形態를 실감나게 한다. 바지의 아랫단에 띠단을 단 것도 高句麗와 같고 대님을 한 모습은 없는 것 같다. 이것이 바로 韓·日 兩國을 가르는 氣候와 風土의 影響이다.³⁹⁾

여기서 看過할 수 없는 점은 3世紀頃의 그들의 原始衣가 5世紀가 되면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胡服系統의 服飾이 埴輪에 나타난다 해도 服飾의 特性上 原始衣와 共存하는 것이 常例이기 때문이다. 이는 外部의 優越한 民族의 征服임이 確然

해지며, 當時 韓族集團은 文化的으로 優越하여 그들의 服飾을 一大 變貌시켰던 것이다.

이는 江上波夫의 「騎馬民族日本征服說」에 의해서도 잘 說明되는데, 그는 韓半島, 特히 金海지방에서 騎馬民族이 日本에 건너가 日本을 征服하고 支配階級이 되어 現 天皇은 그 후예라는 것이다. 이는 前述한 百濟人의 日本征服을 말하는 것이다.

飛鳥·白鳳時代에 들어서면 佛教文化의 性格이 짙어지는데, 이 佛教文化는 유럽 中世의 服飾文化가 그리스트教 文化와 떨어질 수 없는 것과 같이 東亞細亞의 服飾文化와 밀접한 關係를 갖어 敦煌石窟과 正倉院 遺物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聖德太子는 佛教를 숭상하였고, 日本은 552年 百濟로부터 佛教와 그 文物을 받아들인다. 622年 聖德太子가 死後 往生했다는 天壽國을 描寫한 天壽國曼陀羅繡帳도 이러한 佛教文化의 影響을 받은 것이다. 여기에 나타난 男子服飾(圖18, a)은 筒袖의 短衣에 袴를 着用하고 있으나, 袴위에 넓게 주름잡은 褶이라는 것을 입고 있다. 女子(圖18, b)는 역시 筒袖의 短衣를 입고 있으나, 袴위에 주름잡은 裙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男子나 女子의 옷이 團領인 것으로 보이며 다같이 袖端이나 衣端에 襟이 보이고, 特히 바지 下端에도 襟이 보여 百濟의 使臣(圖10참조)의 모습과 相通하므로, 百濟의 衣制를 模倣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로써 當時 日本에는 韓의 要素와 中國의 要素, 日本 自生의 要素가 服飾에 混在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圖 18〉天壽國曼陀羅繡帳 男·女人物

37) 上掲書, p. 38.

38) 日野西資孝, 「日本の美術」, 東京: 至文堂, 昭和 43, p. 20.

이 時代의 服飾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資料가 高松塚壁畫이다.

이 壁畫의 人物服飾(圖19)은 韓半島 服飾要素의 基層위에 部分的인 唐 服飾要素를 受容하여 日本의 霧圍氣에 맞게 着用된 服飾이라고 하겠다. 男子는 幘頭를 쓰고 直領, 左衽, 筒袖袍에 袴를 입었고, 女子는 直領, 左衽, 筒袖上衣에 裙을 입고 있다.⁴⁰⁾



〈圖 19〉 高松塚壁畫 男女人物服飾

이 天武帝의 아들이요, 文武天皇代의 功臣인 刑部 親王의 무덤으로 推定되는 高松塚 當時 日本은 과거의 倭를 벗어나 國家를 形成하고 所謂「朝廷」을 이룩하고 神武建元을 比定하고 中國이나 韓半島 諸國을 본따 새로운 체제로 改革을 斷行하고 朝廷冠服으로 高句麗系의 衣服을 입은 것이다. 當時로부터 日本은 이 半島系의 衣服과 日本自生의 옷이 二重構造로 存在하게 되었고, 支配階級에서는 모두 高句麗系의 衣服을 着用한 것이다.⁴¹⁾

以上으로 보아 埴輪에 나타나는 衣服은 韓半島에서 건너간 騎馬族의 服飾에 氣候, 風土的인 日本要素가 部分的으로 나타난 것이며, 天壽國曼陀繡帳이나 高松塚壁畫에서 보이는 支配層服飾 역시 高句麗服을 基本으로 하고 있다. 이는 7世紀末葉부터 唐服飾이 韓半島나 日本으로 들어와 權威의 象徴으로 쓰여지기 전까지의 現像이며, 唐服飾이 들어오면서도 그 주변에는 東胡服飾의 基本이 허물어지지 않으

면서 中國要素, 日本要素와 共存해 있었다.

IV. 結 論

1. 東北亞細亞 袴의 發生

東北亞細亞 여러 民族에게 共通的으로 나타나는 袴는 尤라시아 內陸에서 日本에 까지 넓게 散在되어 있는 스키타이 文化圈의 北方胡服系 服飾에 그 源流를 들수 있다. 이를 遊牧民들의 衣服은 筒袖의 上衣와 袴로 나타나는데, 狩獵, 遊牧生活을 위해 바지는 좁고 부리에 끈을 묶으며, 가죽 반장화를 위에 신고 있었다. 이는 그들 生活에 아주 適合한 服裝이다.

이 스키타이 文化圈에 속하는 服裝으로서 東北亞細亞에서 最初로 나타나는 遺物은 紀元 1世紀頃 發掘된 蒙古 Noin·Ula의 바지이다. 이는 紀元前後 1世紀頃의 匈奴의 文化遺産인데 裁斷이 單純하면서도 機能的으로 보아 아주 뛰어난 狩獵服이었다. 이는 또한 4~5世紀頃에 나타나는 高句麗 古墳壁畫의 袴와도 매우 類似하다.

이 스키타이 文化 범주에 속하는 Noin·Ula 바지를 통해 東北亞細亞 袴의 原初的 形態를 밝힐 수 있겠다.

2. 中國의 바지

中國은 紀元前 3世紀 趙 武靈王에 의해 스키타이-蒙古의 服飾을 一環으로 한 北方系 胡服을 借用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는 袴를 本格的으로 袷에 着用한 部分的 變化에 불과한 것이며, 실제로는 中國人들도 漢代부터 防寒用으로 袍나 裳속에 袴를 着用하고 있었다.

中國의 古代 袴形態를 보면 袴, 袴, 套袴 窮袴, 褌 등이 있는데 아직 밑이 열린 開襠袴가 漢族의 一般的인 袴制였다. 이러던 것이 時代的 상황으로 인해 騎馬戰術을 必要로 하게 되면서 襠이 붙고 밑이 막힌 窮袴로 변하게 된 것이다. 이는 騎馬民族의 服裝에서 影響을 받았음이 뚜렷하다.

39) 金東旭, 「韓國服飾史研究」, 前掲書, p. 79.

40) 朴京子, 「高松塚壁畫人物服飾의 服飾史의 研究」, 前掲書, pp. 145~147.

41) 金東旭, 「韓國 上古 및 日本 衣服의 系統」, 「東洋學」, 제3집, 단국대학교 부설 동양학연구소, 1973. p. 27.

3. 韓國의 바지

韓國은 古代로부터 東夷族을 根幹으로 하여 蒙古南部地方에 있다가 滿洲平野를 거쳐 韓半島에 定着한 民族이므로, 그 服飾이 北方胡服系統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는 蒙古 Noin·Ula의 服飾과 같으며, Scythian服飾과 同系列이다. 이 古代 西亞細亞帝國에서 影響받은 Scythian의 服飾文化가 東亞細亞로 옮겨와서 亞細亞 最東北方에 위치한 高句麗에 流入되었고, 이 服飾系統이 庶民層을 中心으로 하여 지금까지 傳承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4. 日本의 바지

日本은 3世紀頃까지 貫頭衣나 橫幅衣가 그들의 主된 服飾이었는데, 4~5世紀頃 南部의 百濟人들이 南方的인 文化를 征服하고 乘馬와 鐵器文化를 가진 北方알타이 系統의 새로운 文化를 成立하면서 그들의 支配層으로 등장하였고, 이로써 그들의 服飾에 일대 變革을 가져오게 했다.

日本의 袴는 埴輪을 통해 그 代表的인 形態를 볼 수 있는데, 氣候·風土的인 要素로 인해 바지부리는 넓어지고, 무릎 아래서 脚結한 것 외에는 北方系服飾이다. 이를 衣禪이라 불렀다.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東北亞細亞 諸民族에게는 4~7世紀頃 北方胡服系統의 袴를 着用했음이 뚜렷이 나타나는데, 이는 相互間의 頻繁한 交流에 의한 傳播와 卓越한 異民族의 文化征服으로 要約될 수 있다. 즉 韓國은 古來로부터 北方系 胡服을 着用하여 왔고, 中國은 匈奴와 接觸하면서 北方系 服飾을 받아들이지만 韓半島와의 頻繁한 交流로 인해 胡服樣式과 친숙하게 되면서 庶民層과 女性들에게까지도 普及되게 되었고, 일본의 경우는 當時 文化的으로 우월했던 韓族集團이 南下하여 그들의 南方文化를 征服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結局 韓半島를 中心으로 한 東北亞細亞 袴의 源流는 Scythian 服裝形態에서 뿐만 아니라, Scythian 服裝에 影響을 미친 Persia나 Babylonia, Hebrew 등 古代 西亞細亞 諸國의 服裝形態까지도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이들 古代 西亞細亞 諸國에서는 일찍부터 發達된 裁斷技術이 衣服에 나타나고 있으며, 바지를 着用한 모습도 많이 보이므로 이러한 추측은 妥當性이 있으리라 본다.

本 研究는 東北亞細亞의 袴로 그 範圍가 限定되어 있으나, 앞으로 이와 연관된 古代 西亞細亞 諸國의 服飾에도 關心을 가져야 되리라고 본다.

參 考 文 獻

- 權桂淳, “漢代服飾과 韓服의 交流關係에 對한 研究.” 「暁星女子大學研究論文集」, 前後合篇, 1971, pp. 321~340.
- 金東旭, “蒙古服飾의 韓國 日本의 服飾文化에 끼친 影響,” 「亞細亞服飾學術會議」, 1983, pp. 6~7.
- 金東旭, 「百濟의 服飾」, 서울: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85.
- 金東旭, “韓國 上古 및 日本 衣服의 系統,” 「東洋學」, 제3집, 단국대학교 부설 동양학연구소, 1973, pp. 21~29.
- 金文子, “古代韓國服飾의 源流에 관한 研究,” 博士學位論文,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1984.
- 金元龍, 「韓國文化의 起源」, 서울: 探求堂, 1976.
- 金元龍, 「韓國美術全集」, 4集, 서울: 同和出版公社, 1974.
- 東北亞細亞研究會, 「日本文化의 源流로서의 比較韓國文化」, 서울: 三省出版社, 1980.
- 東洋史學會, 「東洋史」, 서울: 知識産業社, 1983.
- 朴京子, 「韓國服飾論攷」, 서울: 新丘文化社, 1983.
- 朴京子, “高松塚壁畫人物服飾의 服飾史的 研究,” 「誠信女子大學校 生活文化研究論文集」, 創刊號, 1987, pp. 127~176.
- 朴時仁, 「알타이文化史研究」, 서울: 探求堂, 1970.
- 卞麟錫, 「東洋史研究論集」, 서울: 學文社, 1981.
- 三省出版社, 「大世界の 歷史」, 제4권, 1971.
- 石宙善, 「韓國服飾史」, 서울: 寶晉齋, 1971.
- 新羅文化宣陽會, 「新羅의 服飾」, 서울: 新羅印刷社, 1979.
- 역민사, 「世界史年表」, 서울: 역민사, 1984.
- 劉頌玉, “高句麗服飾研究,” 「成大 論文集」, 28號, 1980, pp. 297~335.
- 柳喜卿, “上代會社의 服飾,” 「亞細亞服飾學術會議」,

- 1982, pp. 1~4.
- 李京子, “高句麗 古墳壁畫의 服飾研究,” 「韓國文化研究院 論叢」, 28輯, 梨花女子大學校, 1976, pp. 201~234.
- 李京子, “北方系服飾에의 關心과 服飾史教育.” 「服飾」, 第5號, 韓國服飾學會, 1981. pp. 237~246.
- 李京子, 「韓國服飾史論」, 서울: 一志社, 1980.
- 李如星, 「朝鮮服飾考」, 서울: 白楊堂, 1947.
- 李恩珠, “中國의 袴褶制,” 「安東大學 論文集」, 第7輯, 1985, pp. 815~829.
- 鄭璋鎬, 「地理學辭典」, 서울: 景仁文化社, 1982.
- 曹圭和, “바지의 起源 및 그 交流,” 「國民大學 論文集」, 16호, 1979, pp. 197~219.
- 趙孝順·高福男, “東北亞細亞 古代服飾의 比較研究,” 「明大 論文集」, 제13집, 1982, pp. 307~336.
- 池明觀, 「韓國文化史」, 서울: 三民社, 1985.
- 學園社, 「世界文化史Ⅱ」, 서울: 學園社, 1964.
- 「三國史記」
- 日野西資孝, 「日本の美術」, 東京: 至文堂, 昭和43.
- 杉本正年, 「東洋服裝史論攷」, 東京: 文化出版局, 昭和54.
- 井筒雅風, 「原色日本服飾史」, 東京: 光琳社, 昭和59.
- 薦司綸子, 「服裝文化史」, 東京: 朝倉書店, 昭和57.
- 王宇清, 「中國服裝史綱攷」, 中華大典編印回印行, 中華民國61.
- 王宇清, 「中華服飾圖錄」, 世界地理出版社, 中華民國73.
- 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 商務印書館香港分館, 1981.
- 張末元, 「漢朝服裝圖樣資料」, 金英淑譯 서울: 東洋服飾研究院, 1984.
- 「世界歷史地圖」, 朝日新聞社, 1980.
- 「中國少數民族服飾」, 中國中央民族學院, 中國人民美術出版社, 1982.
- 杉本正年, “東아시아의 服飾系統,” 「衣生活研究」, vol. 9, No. 3·4, 關西衣生活研究會, 1982,

pp. 61~66

- 杉本正年, “ユ-ウラシア 服飾文化考(4),” 「衣生活研究」, Vol. 9, No. 6, 關西衣生活研究會, 1982, pp. 47~52.
- 加藤定子, “ズボンの 起源 について- ノイン・ウラ(匈奴)の 遺品を中心に,” 「亞細亞服飾學術會議」, 韓國服飾學會, 1984, pp. 21~30.
- H.H. HANSEN. Mongol Costumes, K ø BENHARVN, 1950.

ABSTRACT

A study on the origination and transmission of Koh(袴) in Northeast Asia
—from the 4th century to 7th century

By Kyung Ja Park
Jean Kyung Lee

Koh(袴) was a type of dress worn on the lower part of the body which was commonly used in the Northeast Asia. It was originally used by the Northern race for the need of nomadism or hunting. The origin of the Koh which appeared in the area would be found from the trousers of the Huns who influenced in the Northeast Asia, and became in the part of the Scythian culture.

The Scythians are the nomadizing race inhabited in the Northern Caucasus on the west of the Black Sea and influenced on the inland Eurasian steppe as the first typical horse-riding race.

The objectives of Koh which had been worn in the Scythian, Mongolia, Korea as well as Japan as a part of Dongho dress and ornaments and to contemplate the transmission process by cultural exchange among different races for the period from 4th century to 7th century.

1. The Origination of the Koh

The Koh was originated by the environmental factor to protect the cold in the North but also

from the heat in the South, and was changed and developed as gradually satisfying to the needs of the times.

In the Northeast Asia the Koh was in the class of the Northern Chinese garment, and was used widely by the horse riding Scythians who moved widely from the Eurasian inland to Japan.

The oldest original which could reflect the type of the Northern clothes was a pair of trousers discovered in the Huns remains of Noin Ula. This showed the exact form of hunting clothes and had a similar form with the Korean female trousers. Since the same form of trousers drawn on the wall painting of which was excavated 4-5th century ancient Koguryo(高句麗) tomb was the same form, the trousers of Noin Ula seemed to be the original form of Koh in the Northeast Asia.

2. The Chinese Trousers

It was the time of the King Mooryung(武靈王) in the Cho(趙) Dynasty B.C. 3th century that the trousers used regularly in China. However, the Koh had been used as undergarment which functioned for the protection of the cold not the horseriding garment. The trousers seemed to be not very obviously shown off since the Poh(袍) was long, but mainly used by the people from lower class. As people learned the adapted the trousers. It was essential for the times of war and quarrel. The king himself started wearing the Koh.

The Chinese trousers were influenced by the Huns, the Northern clothes of the Scythian culture, and similar to the Korean clothes.

3. The Korean Trousers

Korean was a race bared from the Eastern foreign group. It was obvious that the clothes was Baji-Jeogori(바지·저고리), the garment of the Northern people. This had the same form of the Scythian dress and ornaments which was excavated from the Mongolian Noin Ula.

The Scythian dress and ornaments were influenced from the Ancient West Asia Empire and transmitted to the Northeast Koguryu by the horseriding Scythian. The trousers were kept in the traditional style by the common people in Korea were transmitted to Japan which were for behind in cultural aspect, as well as got used to the Chinese as the efficient clothes though active cultural exchange.

4. The Japanese Trousers

The ancient Japanese clothes were influenced by the Southern factor but not the form of the Koh. As the Korean people group was moving towards Japan and conquer the Japanese in the 4-5th century, however, North Altaic culture was formed and at the same time the clothes were also developed. The most influenced clothes at this time were those of Baekge(百濟) and the trousers form called Euigon(衣禪) became the main form. Because of the climatic regional factor, it was tied not at the ankle but under the knee.

From the view the ancient Japanese clothes disappeared about that time, it could be due to the conquest of the culturally superior race but not the transmission of the culture.

In the latest 7th century both the Chinese and Japanese dress forms were present, but the Dongho(東胡) dress and its ornament from Korea was still the basic of the Japanese dress form.